Q 유엔군은 38도선에서 종전하려 했다.

A 미국의 지도부는 중공의 침략에 대한 대처 방안도 반드시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조치를 통해 강구되어야하며, 서방측 유엔회원국의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후 유엔군의 전략은 유엔 주도하에 38도선에서 휴전하여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엔의 새로운 전략

유엔군은 중공군의 3차 공세를 격퇴하고 대대적인 반격에 들어갔으나 새로운 상황에 대비한 지도노선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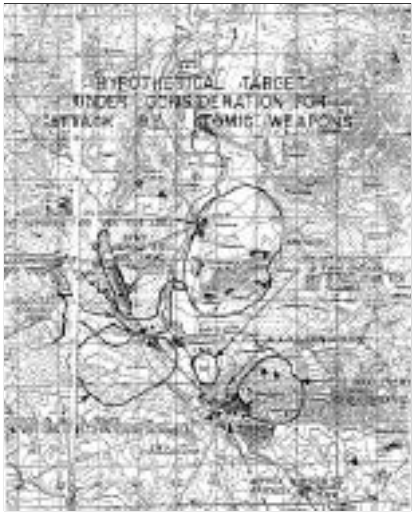
새로운 전략방향을 토의하는 미 대통령 트루먼과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

다. 이러한 논의에서 미국 정부는“ 중공은 두 번째 팀이며 진짜의 적은 소련이고, 미국이 중공과의 전쟁에 깊이 말려들어 군사력의 주력을 투입해 전면전을 전개해서는 안된다 ”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유엔에 파견된 한국대표단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한국의 통일은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이루어질 뿐이다. 중공의 개입은 북한의 침략과 마찬가지로 유엔에 대한 도전이다. 유엔의 참전은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서이며 그런 정신으로 중공도 격퇴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대표단은 우방국에 우리의 통일 정책목표와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어정쩡하게 전쟁직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한국국민들의 소망과 크게 상치된다는 점도 역설하였다.

미국의 핵무기 운용계획과 영미회담

이 무렵 미국은 새로운 대응전략의 하나로 핵무기 사용을 적극 검토



미 극동사령부가 핵무기 공격을 고려한 평강 지역의 가상표적

하고 있었다. 미 국방부는 극동군사령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지상군 근접지원 핵무기 긴급사용(Emergency Use of Atomic Bombs in Close Support)’계획을 수립하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공군의 참전으로 불안해하는 우방국 특히 유엔군을 파견한 회원국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유엔군은 한국에서 임무를 포기할 의도가 전혀 없다 ”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뒤따른 기자의 질문에서 “ 미국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의 사용을 포함하여 군사상황에 대처할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이며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도 늘 적극적으로 고려해 왔다 ”고 하였다.

트루먼 대통령의 회견내용은 즉각 국제적 반향을 일으켰으며 특히 나토(NATO)회원국들은 세계안보의 관점에서 크게 우려하였다. 특히 영국의 애틀리 수상이 즉시 워싱턴을 방문하였다. 영국 수상은 이에 앞서 중공의 참전에 따른 상황전개와 관련해 이미 프랑스 플레빈 수상과도 협의를 가진 바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서유럽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었다. 영 · 미 영수회담은 유엔군의 새 전략수립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영 · 미 양측은 유엔의 권위와 위신의 신장, 전면전을 회피해야 한다는 중요성 등 기본적인 문제는 합의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회담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전쟁 이전의 38도선을 토대로 전투행위를 종결짓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중공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양보해야 할지의 문제가 남아 있긴 하였지만, 차후 유엔군의 전쟁지도 노선의 대원칙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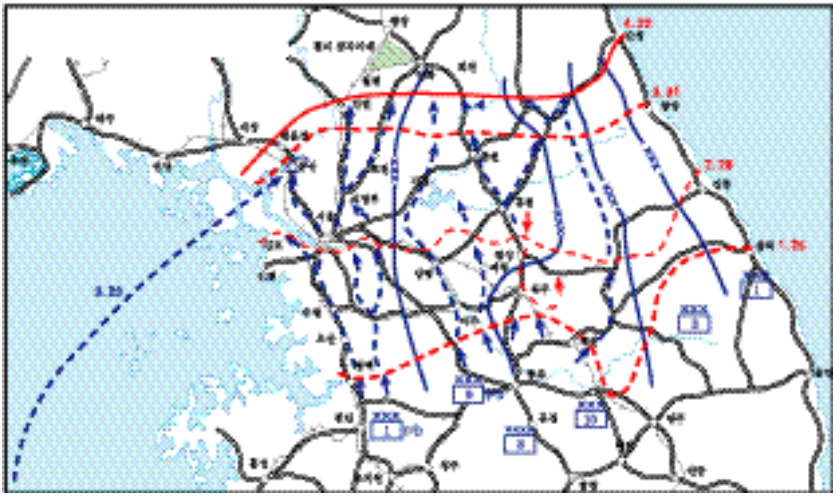
38도선 상의 현상유지 정책

그동안 어렵게 결성된 휴전위원회의 노력도 공산군의 반대로 수포로 돌아가고 중공군의 공세가 계속되자, 또다시 철군과 확전조치에 관한 전략논쟁이 일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미 합동참모본부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였다. 즉 전쟁에 미군과 유엔군의 투입을 가져온 유엔의 최초 지시는 이제 시효가 지났으며 수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이었고, 중공의 의도가 유엔군을 한국에서 몰아내려는 것임이 명백해진다면 정부 수준에서 가능한 빨리 미군의 철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맥아더 장군은 싸워서 이기려는 의지의 상실로 판단하고 회신을 통해 오히려 강력한 확전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는 앞서 자신의 확전주장이 또 다른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된 일이

유엔군의 재반격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공이 전쟁에 완전히 개입한 이상 더 이상 악화될 것이 없으며, 오히려 강력하게 보복할 좋은 기회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은 중국본토에 대한 직접적 군사조치의 요구에 대해,“ 우리의 군사력이 건설될 때까지 적대행위 지역의 확대에 관한한 아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 6 · 25전쟁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일지라도 그로 인해 일본이나 서유럽이 대규모 적대행위에 말려든다면 결코 이롭지 못하다 ”라는 점을 맥아더 장군에게 경고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 정부는 맥아더 장군에게 유엔군이 직면한 상황을 냉철히 직시하도록 주의를 주고 아울러 적에게 최대의 피해를 가하면서 진지를 방어하되, 인력과 물자의 손실을 최대한 피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여기에는 결코 한국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동시에 확전을 억제하고 휴전정책을 통해 전쟁을 종료한다는 의지도 내포한 것이었다. 영 · 미 영수회담에서 합의된 현상유지정책에 기초한 지침이었다.

생각해 봅시다!!

1. 유엔군의 현상유지 정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영 · 미 영수회담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